올가을 유행하는 '플리츠 스커트' 스타일링

올가을엔 특히 촘촘하게 주름이 잡힌 '플리츠 스커트'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움직임에도 쉽게 찰랑거리는 주름 치마는 우아한 매력을 극대화해 가을에 더욱 잘 어울린다.

하지만 플리츠 스커트는 잘못 입으면 촌스럽고 올드한 느낌을 줄 수 있다. 2019 F/W 시즌 런웨이의 플리츠 스커트 스타일을 'styleM' (stylem.mt.co.kr)이 소개했다.

◈ '플리츠 스커트' 선택법

올가을 런웨이를 뜨겁게 달군 1970년 무드의 플리츠 스커트. 올시즌엔 보다 대담한 스타일의 플리츠 스커트가 유행을 예고했다.

올가을 플리츠 스커트는 강렬한 컬러를 입은 것은 물론 체크, 에스닉 패턴 등을 입어 더욱 화려해졌다. 속이 비치는 시스루 스타일의 디자인도 등장했다.

스커트의 길이는 더 길어졌다. 무릎 보다 길게 내려오는 미디, 롱 플리츠 스커트가 대세를 이뤘으며, 비대칭으로 커팅된 독특한 플리츠 스커트도 등장했다.

◈ 포근하게, 페미닌하게

트렌디한 플리츠 스커트를 선택했다면 상의는 포근한 니트 스웨터를 매치할 것.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 플리츠 스커트에 풍성하고 박시한 실루엣의 니트를 함께 스타일링하거나 딱 달라붙는 상의로 몸매를 드러내기보다는 오버사이즈 니트로 루스한 실루엣을 연출하면 멋스러움이 살아난다.

블라우스와 벨트를 활용하면 좀 더 포멀할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무드의 클래식하고 페미닌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 다양한 재킷과 함께

재킷 역시 오버사이즈가 대세이다. 한껏 부풀린 어깨선과 몸매를 모두 가리는 넉넉한 실루엣의 재킷을 선택해야 멋스럽다.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레트로 스타일의 영향이 크다.

파워숄더를 장착한 박시한 실루엣의 테일러드 재킷이나 펑퍼짐한 봄버 재킷을 여성스러운 플리츠 스커트와 믹스매치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뉴트로' (New+Retro, '새로움' 과 '복고' 를 합친 신조어) 무드가 절로 묻어난다. 다만 오버사이즈 재킷을 선택할 경우 이너는 몸에 밀착되는 디자인을 고를 것.

'슈트의 정석' 대로 입는 것도 방법이다. 말끔한 슈트 룩이 이번 시즌 트렌드로 꼽히는 만큼 어깨에 꼭 맞는 재킷에 블라우스,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한 스타일도 올가을엔 촌스럽지 않다.

박시한 재킷과 플리츠 스커트의 매치가 왠지 어색하다면 허리선을 꽉 졸라맬 것. 벨트를 활용해 과장된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 라인을 연출해 모래시계 실루엣을 연출하면 트렌디하다.

■ 피부 상식

✳ 목주름 예방법

♥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수분 크림은 필수

자외선은 피부노화 원인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평소 목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줘야 한다. 또한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어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보습크림, 영양 및 탄력 크림 등을 발라주는 게 좋다.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이 빠질 때 갑자기 목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신 전후, 다이어트 전후에는 반드시 목 주름 방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비스듬히 누워 TV 보지 않기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비스듬히 눕는 자세, 한쪽 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는 목주름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목을 바로 편다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를 잡고 있어야 한다. 틈틈이 목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목을 좌우로 돌려주거나, 입을 '이' 하고 힘주어 벌렸다 풀었다 하면서 얼굴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된다.

♥ 너무 높은 베개는 안돼

잠 잘 때에 너무 높은 베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목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게 해 목주름을 만든다. 누웠을 때 몸이 수평이 될 정도의 베개 높이가 적당하다.

♥ 목도 얼굴처럼 깨끗이 씻어야

목을 잘 씻지 않으면 각질이나 노폐물이 쌓여 피부가 빨리 노화된다. 또 때수건으로 목을 심하게 문지르면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가 얇아지며 탄력이 없어져 주름이 쉽게 생긴다. 얼굴을 세안하듯 자극이 적은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해 깨끗하게 닦아낸 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어 내는 게 좋다.